

【논문】

결정론과 자유*

김효명

【주제분류】 근현대영미철학, 형이상학

【주요어】 자유, 인과, 결정론, 양립론

【요약문】 자유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역사는 꽤 길다. 특히 근대에 와서 자유가 근대과학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에 더욱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그 배경에 중세신학과 근대과학 간의 충돌이라는 더 큰 세계관의 싸움이 깔려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와 결정론의 마찰에 관한 근대 이후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양자, 즉 자유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한지 아닌지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양립론이 맞는지 아니면 불가양립론이 맞는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그 보다는 자유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하다” 또는 “아니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결정론’은 또 무엇을 뜻하는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가능한 한 일상적 경험에 비추어 한 번 반성해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자유개념과 관련하여 거기에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특히 양립론자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따라서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의미는 없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고찰해보았다. 그 두 측면은 모두 ‘철학적’이라는 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것들로서 간단히 말하여 그 하나는 욕망이나 두려움, 공포 등과 같은 인간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법칙과 같은 정해진 틀에서 일탈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 측면이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제8차 인문사회계열 학문 전공교수 해외연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I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운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중요 철학적 문제들의 목록에 항상 단골메뉴처럼 등장해 왔다. 그것은 의지의 자유여부가 그 자체로도 이론적 흥미를 끄는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중대한 실천적 함의—종교적, 도덕적 함의—를 가진 문제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망설임은 우리의 일상사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로서 이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의지가 자유로운 것임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끝없는 선택적 상황의 연속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은 우리의 삶의 기본 속성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질 않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반드시 철학적 반성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회의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는 그 뿌리마저 흔들려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한 개인의 단기간의 경험에서도 그렇지만 역사적 경험에서는 그런 일이 더욱 흔해 보인다. 개인사의 국면에서 보더라도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든, 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펼쳐지는 경우도 적잖아 보이고, 또 한 국가나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의 주체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주체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말하자면 역사의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는 역사대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

자유 의 문제의 근대철학에서 제기된 맥락은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근대철학에서 자유의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는 근대과학과 신학의 마찰, 근대과학의 새로운 세계관과 전통적인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깔려있다. 근대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이 바로 근대과학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이었다. 다시 말하여 인간도 세계의 일부분인 이상 그러한 기계론이나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이 물음에 예 또는 아니오 라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기가 힘든 것은 인간이 양면, 즉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면과 자유를 구사 할 수 있는 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결정론이든 자유든 둘 중의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는 버림으로써 비교적 쉬운 길을 택한 두 입장-흔히들 ‘결정론’(Determinism)이라고 부르는 입장과 ‘자유지론’(Libertarianism)이라고 부르는 입장-보다는 둘 중 하나도 안 버리겠다는 제3의 입장이 철학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인간이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도 인정하고 또한 동시에 인간이 자유롭다는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앞선 두 입장을 결정론과 자유의 ‘양립불가능주의’(Incompatibilism), 또는 ‘양립불가론’이라 부른다면 세 번째 입장은 ‘양립가능주의’(Compatibilism) 또는 줄여서 ‘양립론’이라 불린다. 그런데 이 양립론을 입론하기란 쉽지 않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에 매달려 왔는가 하면 근대 과학의 세계관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인간의 도덕적 책임도 방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결정론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자유지론을 따르면 인간에게도 자연과 함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양자를 모두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 더 많은 설명과 더 많은 논변을 요한다.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철학적 논란도 일으킨다.

양립론을 입론하기가 간단치 않은 것은 단순히 결정론과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상호 모순되어 보인다는 논리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데에서 그 입론의 어려움이 연유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여 양립론이든 아니든 그 논의의 대상이 인간이고, 이 때 인간은 ‘이성적 동물’같은 단순한 개념적

측면으로 파악된 인간이 아니라 그 보다는 사실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양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인간일 것이기에 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뜻이다.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인간은 우선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것이 일상적 경험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바로 그 사실이 자연과 구별되는 점일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자연에 관한 기본적 사실은 그것이 결정론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다고 파악되고 자연은 결정론적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자연과는 다르게 인간은 자유로 파악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정론적으로 파악되는 측면도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유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한지 아닌지의 물음도 인간과 관련해서 제기되지 자연과 관련해서는 제기되지 않는다. 자연을 두고 자유가 있느니 없느니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것이다.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홉스(T. Hobbes)가 자유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흐흐는 냇물을 예로 든 적이 있었는데,¹⁾ 흐르는 냇물을 두고 자유롭다고 볼 사람은 시인 말고는 없을 것이다. 자유와 결정론의 양립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의미 있게 제기되는 맥락은 오직 인간의 경우뿐이다. 앞서서도 말하였다시피 인간의 경우에 양립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의미가 있다는 주장은 인간이 자유이기도 하지만 결정론의 지배도 받는다는 점을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양립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해묵은 이슈를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일반적으로 양립론에서 말해지는 ‘자유’란 정확히 무엇을 말함인지, ‘결정론’은 또 무엇을 뜻하는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가능한 한 일상적 경험에 비추어 되짚어본 다음, 특히 자유개념과 관련하여 거기에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특히 양립론자들이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어떤 측면은 없는지를 한 번 반추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또 그럼으로써 양립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도 이 글의 부차적인 바램이다.

1) T. Hobbes, *Leviathan*, chapter 21 참조.

II

우선 근대 이후 특히 경험론의 전통에서 논의되어 온 자유는 인간의 신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점은 경험론이 데카르트부터 시작되는 합리론의 전통과 그 궤를 달리하게 된 한 지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는 한갓 기계적으로만 움직일 뿐인 시계와도 같은 것이어서 그 시계를 두고 자유다 아니다 라고 말할 여지가 아예 없다. 그것은 한 마디로 결정론적인 필연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정신은 자유였다. 자유는 원천적으로 하느님의 의지에 속하는 것으로서 신체와는 별개의 실체인 정신에만 부여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 형이상학에서 자유와 필연이 어떻게 인간에게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는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자유를 신체는 도외시하고 오직 정신의 작용, 특히 의지 작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하려는 시도는 중세철학이 남긴 유산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와는 다르게 경험론은 이러한 중세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인 소위 ‘자유주의’(liberalism)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경험론자 로크(J. Locke)는 우선 자유가 귀속되는 주체가 의지가 아니라 인간임을 강조했다. 이 점은 그 이전 홉스의 철학에서도 발견된다. 홉스나 로크는 자유가 의지에 귀속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로크는 ‘의지의 자유’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어법이라고 했다. 그것은 일종의 범주착오다. 대신 자유는 행위자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말해야 제대로 된 어법이라는 것이다. 의지도 일종의 능력이고 자유도 일종의 능력인 바, 하나의 능력이 다른 능력에 귀속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²⁾

자유를 인간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보아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중세적 배경과 그 배경을 깔고 전개된 데카르트적 인간관이 지배하였던 그 시대의 지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분명 혁신적인 것이었고, 새로운 인간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내용의 주장이었다. 자유를 인간의 정신에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가진 인간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곧 합리적 행위의 주체에 귀속시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험론 전통에서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행위를 떠나서는 말해질 수 없다. 그래서 로크는 “인간이 자유롭다”는 말의 뜻을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해석하였고,³⁾ 흄(D. Hume) 역시 자유를 “나의 의지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규정하였다.⁴⁾ 로크가 들은 예들을 보자. 내가 의자에 앉고 싶으면 앉을 수 있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날 수 있다면 자유롭고, 일어나고 싶는데 손과 발이 묶여 있어 일어날 수 없다면 자유롭지 않다. 또 내가 다리를 지나다가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물로 떨어지는 경우, 그 순간 나의 바람은 안 떨어지는 것이나 나의 바람과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힘의 행사가 불발로 끝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경우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로크는 의자에 묶여 있거나 물로 떨어지는 경우나 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모두 자유로운 경우가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나의 신체를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 또는 ‘종교적 자유’라고 말할 때의 자유

2) J.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Book II, chapter 21, section 20-21 참조.

3) 위의 책, Book II, chapter 21, section 12 참조.

4) D. Hume, *An I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section 8 참조.

개념은 어떤 억압, 강제, 구속 등이 없는 상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뜻하는 부정적인 또는 소극적인 개념인데 반하여 이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철학적인 자유’는 나의 의지작용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로크의 자유론에서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의 구별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나의 의지에 따라 내가 행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없다는 점을 필요 조건으로 가질 것이므로 양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로크의 이론에서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철학적 자유와 소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치적 자유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각각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로크의 철학을 위시한 경험론 철학에서 말해지는 자유개념은 구태여 ‘철학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다른 자유개념과 차별화시킬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싶다. 다시 말하여 ‘철학적 자유’라는 이름에 걸 맞는 어떤 특수성도 없지 않나 생각된다. 철학적 자유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면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럴 터인데 자유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닮은 인간의 의지에 귀속시키지 않고 신체를 가진 인간에게 귀속시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요소를 외면했다는 뜻일 것이고, 또 바로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요소 때문에 자유를 ‘철학적’이라 부른다면 그 이름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크의 자유는 말하자면 신체성이 결여된 정신만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 육화된(incarnated) 자유, 신성과 결부된 추상적 자유가 아니라 세속화된(secularized) 구체적 자유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러한 ‘육화되고’ ‘속화된’ 자유가 자유의 개념적 내용의 전부를 담지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로크의 자유가 근대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들을 들여다보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주변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게끔 한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역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진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도 부인 못할 사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것만으로 과연 ‘인간의 자유’를 다 담보하기에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위에서 ‘자유개념의 전부’라든지 ‘인간의 자유’라는 좀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모호성은 자유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모호성에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유’라는 말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 다양한 종류의 의미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등은 흔히 듣는 말들이다. 또 ‘도덕적 자유’, ‘철학적 자유’, ‘형이상학적 자유’ 등의 구분은 철학에서 말해진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의 구분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자유는 또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와 ‘시작의 자유’(freedom of origination)로 분류되기도 하고, 억압이나 강제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constraint)와 필연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necessity)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후자의 구분, 즉 억압이나 강제로부터의 자유와 필연으로부터의 자유의 구분이 우선 눈에 띈다. 억압이나 강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와 필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가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테니스를 칠까 말까 망설이다가 숙고 끝에 치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테니스장에 가보니 문이 잠겨있어 칠 수 없었다고 해보자. 치려고 하는데 칠 수 없는 상태도 일종의 억압이나 강제의 성격을 띠는 상태일 것이다. 나의 생의 일정한 시점에서 테니스를 칠까 말까 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망설임 끝에 치기로 마음먹은 것도 정해져 있고, 테니스장의 문이 그 시점에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마저도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내가 어떤 장애요인 때문에 테니스를 칠 자유를 갖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함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앞의 모든 것들이, 특

히 그 시점에 문이 잠겨 있는 사태가 필연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거기에는 그 나름의 원인은 다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다는 것과 필연이라는 것은 다르다. 테니스를 그 시점에서 치기로 한 나의 결정도, 그 순간에 마침 테니스장 문이 잠겨 있음도 모두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더 부합된다. 그렇다면 억압이나 강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와 필연에 반대되는 자유는 분명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특정한 시점에 나의 의지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과 모든 것은 필연의 법칙에 묶여 있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이다.

선택의 자유와 시작의 자유간의 구분도 양립론이 문제가 되는 문맥에선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선택의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비교적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내가 등산을 할 때 산 중턱 어느 지점에서 정상으로 올라갈까 말까 망설인다고 해보자. 망설임 끝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머물고 다시 하산을 할 수도 있다.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선택은 나의 자유다. 흠의 예를 따른다면 내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일어나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 선택의 자유가 이른바 ‘시작의 자유’와 다른 점은 선택이라는 마음 작용이 선택에 따르는 결과의 원인은 되겠지만 그것이 최초의 원인, 최초의 ‘일어남’은 아닐 것이라는 데에 있다. 앞의 예에서 내가 올라가기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과 정상으로 향한 내 신체의 움직임 사이에는 인과적 연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또 따로 있을 것이므로 선택은 계속 올라가는 행위를 결과로 가지는 일련의 인과적 사슬의 한 매듭에 불과하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와는 다르다는 ‘시작의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연적으로 들어난 셈이다. 즉 아무런 선행 원인도 가지지 않는 어떤 심적 작용이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의 자유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심적 사건이 그러한지는 전혀 분명치 않다.

III

물론 이로써 다양한 자유개념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립불가론이나 양립론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일단 분명히 해두자는 목전의 목표를 위해서는 이상의 고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결정론’이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결정론’은 최소한 두 가지 주장으로 이해된다. 즉 모든 사건이 필연적인 인과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서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는 정도의 주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전자를 보통 ‘강한 결정론’(hard determinism)이라 부르고 후자를 ‘약한 결정론’(soft determinism)이라 부른다. 결정론의 주장을 이와 같이 구분해 본다면 우선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어떤 것이 자유와 양립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것이 양립되기 힘들 것 같은지가 쉽게 분간이 간다. ‘결정론’을 후자와 같이 약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결정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들 결정론자들은 대부분 인간의 자유도 인정하였다. 그들에게 자유롭다는 것은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것이었다. 고전적 양립론의 대표적인 흄은 ‘자유와 필연성’(Liberty and Necessity)이라는 이름의 글⁵⁾에서 소위 ‘필연성 이설’(doctrine of necessity)이라 일컬어지는 입장을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장황하게 역설한 뒤, 앞서 말한 바대로 자유를 “내가 의지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으로 규정하였다. 흄이 말한 ‘필연성 이설’이란 고전적 결정론의 다른 이름이다. 다시 말하여 ‘결정론’이 어떤 사건이든 원인 없는 사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어난

5) *An I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section 8.

또는 일어날 모든 사건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 결과라는 일반적인 주장으로 이해된다면, 흄의 ‘필연성 이설’이 바로 그러한 주장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필연성 이설’이 ‘필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위의 일반적인 주장 이상의 것을 함축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규칙성(regularity)이나 불변적 연결(constant conjunction) 보다 더 강한 의미를 띠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필연성을 논하는 문맥에서 사용된 ‘필연성’이란 바로 규칙성이나 불변적 연결을 의미한다. 만약 ‘필연성’이 강한 결정론의 주장에서처럼 규칙성 이상의 더 강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와 양립이 가능한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반론으로서의 결정론, 즉 흄을 따라 말한다면 규칙성으로 이해되는 결정론은 일반적으로 자유와 반드시 대립될 필요는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나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한 행위도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로 간주될 수 있을 것(나의 의지가 원인)이므로 원인 없는 사건은 없다는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자유와 대립되는 결정론, 다시 말하여 자유와 양립되기 어려운 결정론은 훨씬 더 강한 주장을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든 특정의 시간에 바로 그 특정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필연적으로(규칙성 이상의 뜻을 가진) 결정되어 있어 그 시간에 다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었든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어난 모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유와 이러한 강한 의미의 결정론이나 필연이 어떻게 양립되기 어려운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고찰해보자. 야구경기에서 투수와 타자의 대결을 생각해 보자. 상식적으로는 투수가 어떤 볼을 어떤 방향으로 던질지도 투수의 마음먹기에 달렸고 타자도 어떤 볼이 어떤 방향으로 올 것인지를 예상하고 칠 것인지 말지도 타자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러한 상식에 의하면 특정 순간에 특정의 투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미결정된 것일 터이고 또 그만큼 예측하기도 어

려울 것이다. 그러나 강한 의미의 필연으로 사태를 이해해야 한다는 강한 결정론의 입장은 그러한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투수의 매 회 매순간 어떤 마음을 먹고 공을 어떻게 던질지도 결정되어 있고 타자 개개인도 매 투구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지도 결정되어 있어 특 정의 투구에서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올지, 안타가 나올지 홈런이 나올지 파울이 나올지 아니면 삼진이 될지 등이 모두 결정되어 있고, 따라서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입장의 설명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 것인지 또 그에 대하여 타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모두 행위의 주체로서의 투수와 타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따라서 따라 나올 결과도 전적으로 그러한 의지의 자유에 의존하기에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유의지론의 설명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이 양립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자유와 그러한 의미로서의 필연이 양립할 수 없음도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결정론을 그렇게 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타자가 이번 투구에 치기로 작정하고 쳤는데 홈런이 되었다고 하자. 그가 치기로 작정한 데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타구가 홈런이 된 데에도 원인이 있어, 즉 알맞은 각도에서 충분한 체중이 실린 스윙이 있었기에 나온 결과일 터이다. 그런 점에서 그 순간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도, 홈런이 나온 것도 모두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자가 그 순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고 따라서 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다르게 마음먹었을 수도 있고, 다르게 행동하였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 타자의 자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결정론의 양립론은 그래서 나온 입장일 것이다.

IV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유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한지 아닌지 하는 철학적 논쟁은 결국 ‘자유’와 ‘결정론’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자유’를 필연에 반대되는 의미로, 그리고 ‘결정론’을 강한 결정론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자유와 결정론이 양립될 리가 만무하고,⁶⁾ 다른 한 편 ‘자유’가 강제나 억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거나 또는 나의 의지에 따라 행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힘을 뜻하고 ‘결정론’을 약한 결정론으로 이해한다면 최소한 양자가 부딪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한 자유개념, 즉 약한 결정론과 양립가능하다고 주장되는 자유개념과 관련하여 필자는 이 글의 결론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필자는 자유개념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겠다. 첫째, 앞서 필연과 반대되는 자유와 억압이나 강제와 반대되는 자유가 구별된다고 하였다. 필연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자유에 관해선 특별히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러한 의미의 자유가 실지로 존재하는지도 분명치 않거니와 있다하더라도 양립론을 논

6) 양립불가론자 Van Inwagen의 주장에 의하면 결정론이 참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자연의 법칙과 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합작해서 만들어 내놓은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자연의 법칙도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도 우리 자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은 다시 말하여 결정론이 참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행위할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에게 대안적 가능성(alternative possibilities)도 없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대안적 가능성을 요구하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 된다(P. van Inwagen, *An Essay on Free Will*, Oxford, 1983, p. 56 참조).

하는 문맥에선 아예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 또는 결정론과 양립가능한지 안한지를 논할 때 문제시되는 자유는 그래서 후자의 자유, 즉 강제나 억압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자유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는 또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체적 억압이나 강제가 없다는 의미로서의 자유와 정신적 압박이나 강제가 없다는 의미로서의 자유는 그 의미는 같을 것이나 적용되는 대상이 하나는 신체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자유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자유가 아닌 경우와 거꾸로 신체적으로는 자유가 아니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선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정신적인 부자유는 경우로 강박증 같은 정신병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터인데, 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내적인 구속이나 억압이 있다는 뜻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 중에는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 정신적인 것도 있다시피 억압이나 강제에도 심리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독재정권하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항상 도청과 감시를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억압을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만약 그가 이 억압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 못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못한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신체의 움직임, 예컨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선 과연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그러한 경우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체적으로는 자유가 없으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운 경우가 있을까? 아니 그

러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도대체 ‘정신적으로 자유롭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정신적으로 자유롭다’함은 일단 감옥에 갇혔을 때와 같이 신체의 움직임을 막는 장애가 없을 때 자유롭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어떤 요인, 이를테면 강박증 같은 요인이 없는 상태를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체는 구속되어 자유가 없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장애도 없다는 뜻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가 없다하더라도 신체가 구속되어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더 잘 부합된다. 자유에 대한 철학자들, 특히 로크나 흄의 입장은 바로 그러한 직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직관에 의하면 내적인 강제나 압박이 있든 없든 내가 앉고 싶으면 앉을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면 자유롭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적인 구속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필요조건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또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더 강조되는 것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의 몸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사실엔 어찌하면 내적인 구속이 없다는 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뜻에서의 자유는 신체적 장애가 없다는 뜻에서의 자유 보다는 중요성이 덜한 것 같고 따라서 자유의 철학적 논의에서도 별로 주목받질 못한 것 같다.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두고 그가 아무런 정신병도 앓고 있지 않다는 뜻에서 그래도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설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의 뜻은 아주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편견만 받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으로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사소하지 않고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지도 않는 경우는 없을까? 앞에서 말한 바 있다시피 흄은 자유를 “의지의 결정에 따라 행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힘”

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다시 말하여 만약 가만히 있고 싶으면 그럴 수 있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흠의 이론에 의하면 예컨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롭지 않는 경우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렇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떤 의미에선 분명 자유롭지 못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 장애 같은 사소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를 생각해보자. 그녀가 연금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에게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또 한편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연금 상태에서나마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녀가 또 다른 의미의 자유는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다시 말하여 그녀가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일 것이고 그러한 힘으로서의 자유는 그녀가 연금 상태에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 예컨대 그녀가 엄청난 양의 금전으로 회유를 당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는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면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꾸로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는 사람은 분명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여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 예의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다면 몸은 자유로울지라도 마음은 자유롭지 않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가 흠이 말한 대로 의지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행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위 할 수도 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예컨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행사되기도 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미의 자유는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는 인과법칙과는 무관하다는 뜻에서 양립론을 논하는 맥락에선 주목되지 않았던 자유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 측면은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앞에서 특정 행위를 “안 했을 수도 있다”, 또는 “다르게 행위 했을 수도 있다”(could have done otherwise)는 말이 인간의 자유를 증명해주는 한 징표라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러한 뜻에서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어떤 행위를 선택하든 거기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게 마련이기에 결정론(약한 의미의)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 듯하다. 그런데 “다르게 행위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가름되는가? 다르게 행위 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가?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행위자가 문제의 행위를 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행위와 다른 대안적 행위들을 두고 망설임이나 이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 저 행위를 하면 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지를 숙고(deliberation)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서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가 만약 망설이거나 숙고를 한 다음 그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 아닌 다른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판정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우리가 행위를 하기 전에 숙고를 한다는 점, 또 어떤 특정의 행위를 한 다음 “다르게 행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에 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그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여 “다르게 행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사소한 경우, 예컨대 어떤 목표지점까지 가는데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와 같은 경우,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은 충

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 자유가 있음도 틀림없이 보인다. 그러나 어떤 목표지점까지 가는 데 이 길이 좋은가 저 길이 좋은가 하는 문제와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를 것이다. 문제의 비중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앞의 문제에서는 선택이 열려 있지만 뒤의 문제에선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한 인생의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우, 이를테면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이 법대로 진학하나 아니면 인문대로 진학할 것이지를 두고 고민한다고 할 때 그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말해지는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단순히 이 길로 가기로 했는데 “다른 길을 택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경우와는 좀 차이가 나지 않나 한다. 이 길로 갈까 아니면 저 길로 갈까와 같은 선택의 경우와는 다르게 후자의 경우, 즉 대학진학을 선택해야 할 경우에서는 그 선택을 하게 한 배경으로서 행위자의 성향, 믿음, 가치관, 환경(가족, 친지, 친구 등)등이 같이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간단히 줄여 선택적 행위의 ‘인과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법대를 선택하게 된 인과적 배경과 인문대를 택하게 된 인과적 배경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단순히 다른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한 행위의 인과적 배경을 뛰어 넘어 다른 인과적 배경에 놓였을 수도 있음까지 함축한다. 이는 더 나아가 다른 인생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함축한다. 예컨대 법대로 진학한 사람이 인문대로 갈 수도 있었다는 뜻에서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분명 서울역을 종로를 통하여 갔는데 청계천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뜻에서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과, 그 말은 서로 같지만, 함축하는 바 그 의미는 같지 않다. 법대로 진학한 사람이 인문대로 갈 수도 있었다고 함은 법대로 진학하게 된 인과적 배경이 아닌 다른 인과적 배경에 놓였을 수도 있음을 함축할 것이고, 이는 다시 지금 밟고 있는 경로와는 다른 경로를 밟는 삶이었을 수도 있음을 함축한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이 길로 갔는데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었다고

할 경우와는 다르게 후자의 경우에는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로 그럴까, 즉 정말 “다르게 했을 수도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 않나 한다.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다르게 했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다시 말하여 양립론에 위협이 될 정도로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사실 ‘결정론’이라는 것이 모든 사건에는 단순히 원인이 있다는 정도의 약한 의미로만 이해된다면 그것이 자유와 양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하찮은 문제,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 신체적 행위이든 심적 행위이든 ‘자유롭다’고 말해질 수 있는 모든 행위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 일 것이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 강한 결정론의 주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인과법칙이 있어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내포해야만 그러한 의미로서의 결정론이 어떻게 자유와 양립될 수 있는지가 철학적으로 흥미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한다. 앞에서 제기했듯이 만약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거나 더 나아가 “다르게 했을 수가 없다”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삶의 행로에서 어떤 법칙적인 틀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이 될 것이다.⁷⁾

7) 양립론자 데넛(D. Dennett)은 우리가 실지로 한 것과는 다르게 행위했을 수가 없다는 양립불가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유의지나 도덕적 책임에 하등의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다르게 할 수는 없다”(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고 한 종교개혁자 루터(Luther)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성격과 그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인정한다고 했을 때, 루터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도덕적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데넛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다르게 할 수 없다”는 루터의 말이 뜻하는 바는 그가 자유의지를 포기했거나 도덕적 책임을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 다른 한 편 만약 법칙적인 인과의 틀을 벗어나는 일이 없음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불과하고 때로는 그 틀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인간자유를 무시할 수 없는 한 측면이 아닐까 한다. 앞의 두 번째 측면을 고찰할 때 든 예에서 보았다시피 우리의 삶을 엮는 큰 줄기가 어떤 인과법칙의 틀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사소한 의미의 자유, 즉 나의 뜻대로 나의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앞의 첫 번째 측면에서 고찰한 바 있는 자유, 즉 우리의 삶을 엮매고 있는 인과적 틀을 때로는 벗어날 수 있는 자유 또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 역시 지울 수 없다.⁸⁾

자연과 함께 인과법칙을 따르도록 결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인과의 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적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와는 다른, 경우에 따라선 그 틀을 벗어날 수도 있는 자유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인간인지도 모른다.

정반대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다르게 할 수 없다”를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이해함은 그 말을 데넷 자신의 요구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말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자유가 없다는 말과 같게 된다(D. C. Dennett, *The Elbow Room*, The MIT Press, 1993, p. 133참조).

- 8) 그렇게 된다면 앞서 고찰에서 자유가 심각한 손상을 입음으로써 위협을 받았던 양립론의 입장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살아난 양립론은 종래의 양립론과는 내용면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차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김효명 / 서울대학교 철학과

투고일: 2008. 01. 21

심사완료일: 2008. 02. 22

ABSTRACT

Determinism and Freedom

Kim, Hyo-Myung

Whether freedom is or is not compatible with necessity is one of the problems with which many philosophers have been annoyed for centuries. The so-called ‘compatibilism’ and ‘incompatibilism’ are well known labels for two different responses to the problem. To try to decide which one, compatibilism or incompatibilism, is true is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What I would like to do here in this paper is to reflect what exactly the concepts of freedom and determinism mean when freedom is claimed to be compatible with determinism, and to try to raise a couple of questions with respect to the concept.

Diagnosing the dispute between compatibilism and incompatibilism as ‘merely verbal’, Hume, a classic compatibilist, urges us to accept ‘the doctrine of necessity’ as a plain matter of fact, in both material and mental worlds, and at the same time to acknowledge that we have liberty, which means that we have “a power of acting or not acting, according to the determinations of the will”.

That one has a power of doing whatever he wants would mean that one is able to do it. Simply being able to do something, however, would not be enough to capture and clarify, the philosophical sense of freedom, just because there are many which have a certain ability to do something without being called to be

free. For instance, it makes a perfect sense to say that an airplane can fly, but it must be quite awkward to say that it is free.

Upon trying to make the concepts of freedom and determinism clear, I found that there may be some aspects with respect to freedom which would not be captured by the traditional conceptual scheme. So I tried to pay a special attention to two important aspects of freedom, both of which, I think, can be characterized to be 'philosophical' as opposed to 'political' or 'social'. Whether or not the so-called 'philosophical' freedom does make any sense, and if it does at all, what its sense would be, is one of the problems which I personally would like to tackle. The so-called 'philosophical' freedom has, as I think, at least two aspects to be considered: the one has to do with something like a mental emancipation from all kinds of human wants or desires - freedom has been commonly claimed to be found in being able to do whatever one wants or desires, but here it lies in giving up or withdrawing such desires-, and the other with a possibility whether one could tread a path of lif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one regulated and determined by a kind of causal law.

Keywords: Freedom, Causality, Determinism, Compatibilism